

# PEOPLE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 대한산란계협회 합평지부

### 경로당 377곳에 달걀 6만개 기부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합평군지부가 어버이날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건강에 장수를 기원하며 달걀 2000만 (6만개)을 합평군에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기부받은 달걀을 경로당 377개소에 골고루 배부해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9개 산란계 농가로 구성된 (사)대한산란계협회 합평군지부는 매년 인제양성기금, 불우이웃돕기성금 등을 기부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김인원 대한산란계협회 합평군지부장은 “약소하나마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산란계협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상의 군수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선물을 마련해 주신 산란계협회원에게 감사하다”며 “지역사회에 온정이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합평=최일균 기자



### 서상배 기아 목포지점 오토컨설턴트

### 4000대 판매 ‘그랜드 마스터’

기아는 목포지점 서상배 선임 오토컨설턴트가 누계 판매 4000대를 달성해 ‘그랜드 마스터’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서 선임 오토컨설턴트는 1992년 기아에 입사해 33년 동안 연평균 121대, 누계 4001대를 판매해 34번째 그랜드 마스터의 영예를 안았다.

서씨는 “매일 아침 새로운 고객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며 “한결같이 저를 신뢰하고 재구매와 추천으로 성원해 준 고객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아는 오토컨설턴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강한 판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판매 명예포상 제도, 기아 스타 어워드(KIA Star Awards) 등 다양한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현아 기자



### 남광주농협, 농촌 일손돕기 봉사

남광주농협은 29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남구 양과동 농가를 찾아 대대적인 일손돕기 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이영중 조합장을 비롯해 농업 임직원, 농기주부모임과 고향주부모임 회원 등 총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자리 모판 나르기 등 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작업에 힘을 보탰다.

특히 참여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구슬땀을 흘리며 모판을 나르고, 농작업 현장에서 농민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전했다.

이영중 남광주농협 조합장은 “농촌 일손돕기는 물론,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 “국립서울예술단, 亞문화전당 전속단체로 이전 필요”

### 광주아트포럼, 제작비 대폭 확대·처우 개선 등 주장

### 이병훈 전 의원 ‘亞문화전당 이전에 따른 과제’ 발표

광주아트포럼(수석대표 차두옥)은 광주의 핫 이슈로 떠오른 ‘국립서울예술단’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속단체 이전에 관한 포럼을 지난 23일 ACC디자인호텔 연회장에서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전 2035프로젝트’에 따라 서울예술단의 이전을 발표한 바 있다. 수도권과 지역 간 문화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예술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국립예술단체와 관련기관의 지역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서울예술단의 광주 이전이 첫 지향점이다.

이병훈 전 의원은 “서울예술단이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문화부의 일방적 통보로 사전에 공청회 등 대화의 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에서도 관련 기관들의 대화 노력이 없었고 이제야 민간기구인 광주아트포럼에서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매우 아쉽다”면서 “민약에 서울예술단의 광

제로 발표했다.

이 전 의원은 “서울예술단 광주 이전은 대한영이지만 ‘한국적 전통의 현대화’라는 서울예술단 고유의 존재 목적이 있어 ‘아시아 공동 창작 및 공연 교류·협력’이라는 지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구체적인 항목별, 연도별 필요 예산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지형원 토론자는 “서울예술단이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문화부의 일방적 통보로 사전에 공청회 등 대화의 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에서도 관련 기관들의 대화 노력이 없었고 이제야 민간기구인 광주아트포럼에서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매우 아쉽다”면서 “민약에 서울예술단의 광



광주아트포럼은 광주의 핫이슈로 떠오른 ‘국립서울예술단’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속단체 이전에 관한 포럼을 최근 ACC디자인호텔 연회장에서 열었다.

주 이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기회에 ‘아시아예술단’을 창단하자”고 제안했다.

유희성 토론자는 “문화부와 서울예술단의 대화의 장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라도 마음을 열고 대화를 통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고, 최지선 토론자는 “예술단 이전은 광주시민의 수준높은 문화 향유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기

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 가운데 현장에는 강승 문화부 사무관, 이한태 광주시 문화정책과, 서울예술단 단원, 광주의 문화예술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포럼을 지켜봤다. 향후 이번 포럼이 실제 정책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다정 기자 alsqsl194@gwangnam.co.kr



세이프온은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광주를 위해 ‘찾아가는 교통·생활 안전골든벨’을 개최했다.

### 세이프온 ‘찾아가는 교통·생활 안전골든벨’ 성료

### 광주 학운초등학교 4학년 학생 대상·안전 경각심 ↑

세이프온은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광주를 위해 ‘찾아가는 교통·생활 안전골든벨’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 광주 동구 학운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행사는 4학년 학생 82명과 김진홍 교장·교감,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류혜정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교통·생활 안전골든벨을 통해 어린이들이 교통법규뿐만 아니라 생활안전에 대한 정보를 퀴즈를 통해 익히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류혜정 교수는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등 안전교육과 달걀퀴즈를 통해 기념선물도 제공

하며 어린이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렸다.

최후의 1인 하진형에게는 광주교통문화연구소원 장상이 수여됐다.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장 상에는 김윤건, 광남일보 회장상에는 조이안이 이름을 올렸다. 최우수상(민주아), 우수상(김지호·임석현), 장려상(서지후·김다은·김평안) 수상자도 선정됐다.

행사에 참여한 4학년 전체 학생들에게는 질서·배려상과 상품이 제공됐다.

세이프온 관계자는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 모두 교통 생활안전 홍보대사가 돼 교통 생활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이준영 조선대병원 교수, 대한골절학회 우수 논문상

조선대학교병원원은 최근 이준영 정형외과 교수(사진)가 그랜드하트 인천호실에서 열린 대한골절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원위 골절 골절에서 안정적인 골절고정방법 치료전략의 생역학적 연구’를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연구는 심한 정강이뼈 골절 시 다양한 치료법 중 생역학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골절 고정법을 분석해 비교한 것으로, 향후 하지 골절과 외상환자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준영 교수는 “조선대병원을 찾아주는 환자분들께 최상의 치료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진료와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수는 족부 질환과 하지 골절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조선대병원 정형외과장과 대한골절학회 국제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축구 국가대표팀과 프로축구 광주FC의 팀 주치의로도 활약하고 있다. 이산화 기자 goback@

### 광주교통공사, 청렴 실천 다짐식...개선 방안도 논의

광주교통공사는 최근 광주시 서구 마곡동 본사에서 투명한 공직 문화 정착을 위한 ‘2025 청렴 시책 보고회 및 실천 다짐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사 조이민 사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청렴 실천 선언문을 공동으로 낭독한 후 부서별 자율 시책 내용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전사적인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다졌다.

공사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마다 주관하는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측정’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청렴 모범 기업으로서 위상을 지켜왔다.

올해 역시 부정 청탁 대응 강화, 청렴 공감 소통회, 찾아가는 청렴기동반 운영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선언식이 전 직원의 윤리 의식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기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광주·전남 지역 25개 기관이 참여하는 ‘빛가람청렴실천네트워크’의 회장 기관으로 최근 반부패 정책 동향 파악, 단체별 청렴 우수사례 공유 및 개선점 논의 등 지역사회 청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2025년도 광주교통공사 청렴 실천 다짐 선언식

### 광주도시공사, 무등체육관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 사각지대 CCTV 설치...조도 확보 등 환경 조성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29일 공사에서 운영하는 시립광주무등체육관이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은 경찰청이 주관하는 제도로,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리 운영 체계, 접근 통제, 영역성, 안내표지, 안전 유지 노력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우수시설에 인증패를 수여하는 제도다.

무등체육관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건물로, 주차장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고, 비상벨과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는 등 시설 전반에 걸쳐 범죄예방 인증 체크리스트 91개 항목 중 80% 이상을 충족해 인증을 받았다.

김승남 사장은 “평동체육관에 이어 두 번째로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을 받아 시민이 더욱 안심하



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안전한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산구,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취약계층 지원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지난 28일 구청장실에서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전라·제주 지역본부(본부장 강원식)와 협력해 지역 ‘금융취약계층’ 긴급생필품 전달식을 가졌다.



동구민상 수상자 감사패 수여 광주시 동구는 29일 동구민의 날을 맞아 구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 자치 문화 조성에 기여한 이충진 학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 ‘제29회 동구민상’ 수상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